



관대하게 살아가기

설교자용 자료

선포 사역 & CENTER FOR FAITH AND
GIVING 공동 제작

Center for
**faith &
giving**



**PROCLAMATION
PROJECT**

내용

소개: 본 자료 사용 이유와 방법
자료별 참고 사항
설교와 관대함
Bruce Barkhauer 목사

나는 주님께 무엇을 돌려드려야 할까?
시편 116편

살아있는
사도행전 9:36-43

나눔 그 이상
누가복음 18:9-14

우리가 선택하는 금식
이사야 58:1-9a

고찰를 위한 추가 구절

소개: 본 자료 사용 이유와 방법

어떤 회중들은 새해 예산을 수립할때 가을이나 봄의 한 달을 청지기 정신을 구현하기 위한 집중적인 노력의 기간으로 설정합니다. 그런가 하면, 청지기적 물질관은 실행하는 특별한 기간이 정해진 것이 아니니, 신실한 나눔을 일년동안 계속해서 실천하기 위한 대화를 장려하는 회중들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교회에서 재물에 관해 이야기 하는것 자체를 선호하지 않는 회중과 설교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물질 사용에 관한 주제는 우리 신앙전통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허락된 은사를 지혜롭고 관대하게 사용하며 사는 삶에 대한 충고와 권면으로 가득합니다.

설교와 관대함

강단은 우리가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가장 큰 기회를 제공하는 장소입니다. 소그룹이나 개인적으로 진행되는 교육과 가르침들도 상당한 영향력이 있을수 있겠지만, 여러분이 이런 친밀한 공간을 통해서 접촉할수있는분들의 숫자는 제한되어 있습니다.

강단은 대다수의 회중에게 다가가는 순간을 매주 농축적으로 제공해주는 아주 유용한 장소로 여겨집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피조물들을 위하여 배부시는 기쁨을 고양시킬뿐만 아니라, 주고 받으며 나누는 삶에서 비롯되는 참된 기쁨에 초점을 맞추는 설교의 순간을 상상하실수 있겠습니까? 저희는 관계맺고 있는 공동체가 변화하고, 현실적인 문제와 필요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회 선교 사역에 대해드릴 말씀이 있음을 확신합니다.

누가 이런 말을듣고서 기분이 좋지 않겠습니까? 아니, 이보다 더한 경험들로 인도하는 일들을 해보고 싶다는 영감을 받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청지기 정신을 고향시키는 설교에서 기쁨을 발견할수 있도록 용기를 내십시오.

결국, 현재의 진행 방식만이 유일한 방안이 아님을 보는 희망이 관건입니다.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가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것은 세상을 바꿀 수도 있고, 변화도 시킵니다.

Bruce Barkhauer 목사,
크리스천교회(제자회)를 후원하는 Center for
Faith and Giving 소장

현실을 고려해볼때, 회중은 재정에 관한 대화를 필요로 합니다. 왜냐하면 극빈자를 지원하고, 목회자에게 사례비를 제공하고, 여러 교회들과 관계를 맺는등의 사역들이 재정으로 현실화 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감사를 관대한 삶으로 표현합니다.

훌륭한 설교는 청지기정신과 관대한 삶을 신실하게 살아낼수 있도록 회중들을 고무시킬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관대함에 대한 설교를 연중무휴로 하시든 아니면 특정한 기간에만 하시든지에 상관없이 본 자료들이 도움을 줄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설교 준비에 도움이 될만한 4 핵심 구절과 주석을 보시게될것입니다. 각 구절들을 여러분의 상황에 맞게 조정하여 사용하실수있는 예비용 자료들도 제공됩니다. 여러분은 이 구절들을 4주간의 설교시리즈를 통해서 이용하실수도 있고, 또 여러분의 회중에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되는 시기마다 언제든지 반복하여 사용하실수도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 스토리텔링, 성경공부, 유용한 설교 아이디어를 떠올릴수 있도록 영감을 불러일으키는데 사용하실수 있는 추가 구절과 도움말들도 보실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 사항

본 자료는 크리스천교회(제자회) 총회장 사무소가 제자회 회원님들의 청지기 정신 교육을 후원하는 Center for Giving 과 협력하여 제자회 설교자들을 위하여 개발한 선포사역의 열매입니다. 본 자료들은 Center for Faith and Giving에서 제작한 “신실한, 희망하는, 사랑하는” 및 “관대함에 헌신된” 자료들에서 발췌된 것들입니다. 원문 자료의 기고자들 성함은 Aimée Laramore, Frank Thomas, Richard Lowery, Suzanne Castle, Lisa Davison, Stephanie Buckhanon Crowder, Andra Moran 입니다.

다음의 웹사이트에서 전체 자료와 청지기 정신 관련 자료들을 더 많이 보실수 있습니다 www.centerforfaithandgiving.org.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여러분이 본 자료들을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그리고 어떤 자료들이 도움이 되었다고 여기시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preaching@disciples.org 로 보내주십시오.

나는 주님께 무엇을 돌려드려야 할까?

시편 116편

설교 조언

시편은 기도 외에는 아무 것도 담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히브리어 성경 중에서도 독특합니다. 시편은 사람이 온 마음을 다해 기도해야 한다는 이스라엘의 믿음을 보여줍니다. 신자들은 모든 체험들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깨닫고 기도할때 성령님께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매 순간이 기도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 그 자체가 하나의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며 산다는 것은 온 생애를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시편 116편은 감사 찬송의 전형적인 예입니다. 이러한 유형의 시편에는 하나님의 구원 체험에 대한 시편 기자의 반응이 담겨 있습니다. 일부 신학자들은 시편 116편과 같은 감사의 찬송을 드리기 전에는 애도의 기도가 있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즉 먼저 치유나 구원을 바라며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애도의 중요한 부분은 만약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도에 응답해주시기만 한다면 귀 기울이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라는 기도자의 약속입니다. 시편 116편의 19구절은 그런 약속의 성취일 수 있습니다.

이 기도는 주님을 향한 시편 기자의 사랑과 신뢰에 대한 선언으로 시작됩니다 (1-2절). 이 모두는 성령님께서 자기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체험에 근거한 것입니다. 이 시편기자는 주님의 풍성한 은혜와 자비를 받은 자로서 자신의 감사를 표현하기를 소망하며, 적절한 응답이 무엇인지를 고민합니다 (12절). 어떻게 우주의 창조주께 감사를 표현합니까? 복잡해 보이는 이스라엘의 예물과 희생 제도는 사람들이신과 공동체와 다시 연결되기 위한 장치입니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다양한 인간 경험에 적합한 예물들이 있었습니다. 시편기자는 전통적인 종교의식인 구원의 잔(13절), "서원" 지키기 (14-18), 감사제(17)등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하는 자신의 믿음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열거합니다. 이미 치유를 경험한 바 있던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한 응답으로 레위기 7:12에 나오는 지시를 따랐을 것입니다.

시편 116편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신학적 내용 중 하나는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개념입니다.

히브리어 성경에 어느 정도 익숙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이런 신성한 구절을 전해준 공동체의 종교적 간증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공통된 주제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설교 조언

시편 기자가 관대하고 찬양을 하는것은 성령님께서 들으신다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인간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뿐만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신분의 의도대로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을 보시면서 우리가 변화할수 있도록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을 선포했습니다. 우리의 고난 가운데도 동행하실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시 온전해지기를 바라시는 신을 믿고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우리의 소명은 변화와 온전함을 위한 촉진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돈, 시간, 재능을 지원 하는 대의 명분을 통해 이 과업을 수행할 수있습니다. 우리가 정의와 자애의 편이라고 고백 한다면, 우리는 그 고백이 있는 곳에 우리의 재능을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변화를 불러올수 있고, 놀라운 결과는 우리가 행하는 선행으로 인해 우리가 더 부유하다고 느낀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성찰을 위한 질문

하나님께서 당신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던 때를 떠올릴 수 있습니까? 당신은 어떻게 응답했습니까?

당신의 공동체가 하나님께 관대함과 찬송으로 응답하는 방식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그런 응답을 불러일으키나요?

예배로의 부르심

인도자: 우리는 하나님을 서로의 존재를 통해서 보고 듣기 위해 함께 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선하심에 대하여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님께 보답해야 합니까?

회중: 우리의 존재 자체를 -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세상에 심는 모든것을 제물로 돌려드립니다.

인도자: 우리 함께 구원의 잔을 들고 하나님께 부르짖읍시다.

회중: 항상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인도자: 항상 신실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다함께: 이 시간, 한 백성으로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나눔으로의 초청

Little Calla는 세 살이었고 부활절 초콜릿을 즐겼습니다. 저와 함께 그 달콤하고 얼룩덜룩한 얼굴과 그 행복한 미소를 상상해 보세요. 그녀의 어머니는 냅킨을 가져오며 말했습니다. “Calla야 이리 오렴. 좀 보자. 얼굴 전체에 초콜릿이 묻었잖니!” Calla가 심각하게 대답합니다. “흠, 내눈엔 안 보이는데요.”

때로는 우리와 하나님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온통 선함과 달콤함을 갖고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봐주시고, 알아주시고, 사랑하시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가 착하다고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모든 선하심에 대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우리 자신이 가진 선을 향한 성향과 가능성을 인식하고 그에 걸맞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기도

하나님, 우리라는 존재를 선함과 관대함으로 엮어 주시며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우리 존재안에 이미 주어진 것에 따라 행동하고, 모두에게 정의롭고 관대한 삶을 건설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아멘.

모든 연령층과 능력들을 위하여

예배 공간의 한쪽 벽면을 여러장의 신문 용지로 덮으십시오. 크레용을 제공하고 각 예배자에게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생각해 보라고 질문한 후에, 할 수 있을 만한 대답을 그리거나 쓰도록 권유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어떻게 응답할 수 있을까요?



살아 있는 사도행전 9:36-43

설교 조언

우리가 다비다의 삶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갈 때, 그녀가 자신의 삶을 살아간 방식에서 엄청난 증거와 간증 거리들을 보게 됩니다. 그녀의 죽음에 대해 알게 된 사람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축복을 받았었고, 감동을 받았었는지, 또한 그들의 삶을 가능하게 했던 필수자원들과 도구들을 받았었는지를 곧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직위나 지위에 관계없이 다비다가 행한 선한 삶은 지역내의 특정 사역 단체안에서 쉽게 발견될 수 있었습니다. 그녀가 죽은 것처럼 보였을 때에도, 그녀의 삶과 사역을 증거하는데 기여했던 그녀의 관대함에 대한 실질적인 증거가 있었습니다.

관대함에 대한 설교는 의도적인 노력으로 유업 지속의 소중함을 인식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다비다가 죽었을 때 튜닉과 의복을 들고 있는 과부들을 통해 보여지듯이, 다비다는 지속되는 유업을 남겼습니다. 기부자가 교회에 남기고 싶은 재정적 유산을 구체적으로 지정하지 않았을 때 회중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속옷과 의복들을 주지만 그 선물이 언급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익명성의 중요성을 이해할 수는 있지만, 반면에 우리는 교회가 살아있음을 나눌 수 있는 간증을 할 기회를 놓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물을 공개적이고 열정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교회가 죽은 기관이 아니라 아주 생동감 넘치는 기관으로 보여지는데 도움이 됩니다. 교회가 죽은 단체로 보여질 땐, 너무나 많은 경우에, 재정 상담가, 변호사, 기타 전문가들이 서류상의 대화 파트너가 됩니다. 사람들이 평생에 걸쳐 교회에 대한 소속감과 관대함을 보여주고, 이에 관해 간증할 때, 살아있는 교회는 다른 유산 관련 토론들도 가능하게 함으로, 우리의 신앙 공동체들에게 기회를 제공합니다.

다비다가 죽자 그녀의 친절과 관대함을 직접 알고 있는 수많은 애도자들이 도착했습니다. 지역 사회에 재정적 선물을 주는 것 외에도, 과부들을 위한 튜닉과 기타 의복 생산은 근면, 투자, 가장 소중한 것들에 대한 관심의 중요성을 입증했습니다. 다비다를 가장 잘 알았던 사람들은 그녀의 삶과 선행, 그리고 그녀의 영향력에 대해 기꺼이 간증했습니다. 나누는 것에 관해서 이해하려 할 때, 우리는 시간(time), 재능(talent), 보물(treasure)을 넘어서 네 번째 T, 즉 간증(testimony)을 더해야 합니다.



설교 조언

우리 회중들이 지역 사회 사람들의 삶에 변화를 가져오려고 노력할때, 우리는 하나님에 관해서, 또 그 하나님이 우리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삶이 어떻게 다른 사람들의 삶도 변화시킬수 있도록 허락되는지등에 관한 간증을 더 잘할수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전달해야만 합니다. 연대와 동역의 중요성은 우리가 상호 연결된 존재임을 진실로믿고있음을 다른사람들도 알수 있게 도와주는 꼭 필요한 삶의 유업이 됩니다. 회중들은 그들의 유산은 어떤것이 될것인지를 생각해 보도록 권유받을 수 있습니다. 다비다처럼 우리도 죽음의 상황과 환경으로 부터 거둢나고 부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 있는 동안에, 우리 또한우리의 삶의 유산에 대한 질문과, 우리가 세상에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행동으로 전환시킬 것인지에 대한물음에 대답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유산을 교회가 살아 있다는 증거로 어떻게 제시할 것인지 고민해야 합니다.

죽은 사역과 비전은 결코 풍성한 나눔의 대상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비다를 살아있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처럼 다비다도 삶으로 증거했습니다. 우리도 살아있는 교회, 신앙, 공동체를 제시하도록 부름 받았습시다. 신앙의 선배들의 삶처럼, 우리의 유산도 명확해야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드리는 선물에도 고유한 생명력이 있어야 합니다. 혁신, 창의성, 관대함을 통해 하나님의 선물, 교회의 선물,살아 있는 재정적 물질의 선물을 세상에 보여주십시다.

성찰을 위한 질문

여러분의 지역 사회에서 관대함과 봉사라는 지속적인 유업을 남긴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그토록 영감을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교회는 참여자들의 관대함을 인식하고 높이 평가 합니까? 어떤 방법으로?

누가 밖에서 안을 들여다본다면, 여러분의 교회가 살아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당신이 살아 있다는 것을 알 수있도록 하기 위하여, 당신이 행하는 사역내용을 어떻게 나누실 수 있겠습니까?

예배로의 부르심

인도자: 함께 모여 큰 소리와 온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노래합시다!

회중: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인도자: 겸손과 자애, 섬김과 소망을 노래하십시오!

회중: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인도자: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을 섬기는 감사의 종이 되십시다.

회중: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인도자: 감사함으로 관대함으로 살아가십시다..

다같이: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나눔으로의 초청

오늘 사도행전 이야기에서는 도움이 필요할 때 도르가를 둘러싼 지역 사회가 낙담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관대함에 헌신한다는 것이 항상 은행 계좌로 부터 나누는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도움이 필요할 때 함께 있어주는 선물을 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십일조를 바치면서 어떻게 시간도 바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하나님께 여러분의 존재 자체를 지금 올려드리십시오.

기도: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이 성소안이나 밖에서도 다른 이들과 함께 하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온 삶을 다해 당신의 뜻에 우리 자신을 새롭게 바칩니다. 우리는 이 예물들이 생명과 소망과 치유의 사역을 위해 사용되도록 바칩니다. 주님의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을 향한 복음 전파 사역을 잘 감당할수 있도록 저희에게 힘을 더해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연령층과 능력들을 위하여

메모 카드, 빈 종이, 펜, 마커를 제공하십시오. 예배자들에게 관대함으로 영감을 준 교회의 사람들에게 메모를 쓰도록 권유하십시오. 어린아이들도 그림을 그려 나이 많은 교인들에게 보낼 수 있습니다.

선물 그 이상

누가복음 18:9-14

설교 조언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에는 악한 자와 선한 자를 식별하려는 욕구가 있습니다. 우리는 바리새인이 꾸준하게 드리는 것과 그가 가진 모든것의 10분의 1을 바치는 십일조에 대한 그의 성향을 보게됩니다. 우리는 그의 일관성, 의식 준수, 그리고 그가 자신이 하나님을 가장 잘 따르는 사람이라고 구별하는 방식에 대해 몇 가지 결론을 도출하고 싶은 유혹을 받습니다. 그는 규칙과 의식에 너무 깊이 집중한 나머지 사역의 가장 중요한 요점과 자신이 부름받은 목적을 잊어버리고 만 최초의 사람이거나 마지막 사람이 된것은 아닐 것입니다. 신앙의 규칙, 규정, 의식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우리가 선물을 주고, 나누고, 봉사하는 진짜 이유를 망각한 적이 있습니까?

사역은 우리에게 관한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사역이 전부 우리를 위한 것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나뉠대로 실천할 수 있는 능력들이 있으며, 우리가 사랑하고 고마워하게 된 규칙, 의식, 전통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순수하게 전달하는 것을 방해할 때가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당신의 증인됨, 예배, 나눔,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가 너무 의식화되어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에 직접 말씀하실 여지가 없다면, 오늘 여기에서 당신의 개인적인 삶을 살펴보고 탐구하면서, 하나님 나라와 세상에서 관대함을 베푸는 여러분 모습을다시 상상해볼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십시오.

우리 중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하는 선택에 대해 매일 생각해보지 않고 관대하게 나누라는 부름과 의식 관행을 실행하고 있습니까? 설교자는예배당에 자리한 교인들에게 우리의 삶과 나눔의 전반적인 경향성에 대해 도전할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역, 예배, 은사, 나눔 등의 일정을 기획하면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지도해주실 여지를 거의 남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일상속에 얽매어 있습니다. 관대함에 관한 우리의 진솔한 성향은 정체되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너무 먼 미래의 일로 예정되어 버렸습니다. 이 집 후에, 이번 여행 이후에, 아이들이 떠난 후에, 이 비용을 지불한 후에, 내가 승진한 이후에 - 어떤 상황이든지간에,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관대하심을 먼 훗날에 더 잘 증거할 수 있다고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 생활에서 규칙을 따르고, 옳은 일을 하며, 우리에게 요청되는 모든 것들을 충실히 준수하는 데 너무 몰두된 나머지, 우리는 통큰 관대함을 실행할 기회를 우리의 고려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설교 조언

우리는 바리새인과 세리 그리고 이 둘의 사이 어디엔가 위치하는 모든 사람들로 구성된 교회입니다. 이 둘 모두에게서 교훈을 얻음으로서 둘 중의 하나가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최선의 길을 제공한다는 우리의 생각을 제거해 버릴수 있을까요? 이런 훌륭한 교훈들을 다른 사람들도 배울수 있도록, 따로 지내려 하지 않고 냉담하지도 않은 믿음의 가족으로 통합되려는 신실하고 일관성 있는 기부자들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서 교회에 기부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멘토링할만한 신실한 기부자와 신자들이 필요합니다. 또한 우리는 관대함에 관한 모든것에 적용시킬수 있는 완전한 모델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일관되고 신실한 기부자로 부름받은 경험을 했든지, 여러분이 추구하던 부, 직위, 사회적 인정이나 다른것들의 영향으로 체험하게 된 급진적 관대함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위한 자리를 마련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어디에 있던 참여를 장려하고, 바리새인과 세리의 모든장점을 활용하는 것이 설교자의 임무입니다. 우리는 마음을 겸손하게 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관해 묵상하고, 우리 각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근거하는, 신선하고 새로운 이해를 바탕으로 한 나눔을 실천할수 있습니다.

성찰을 위한 질문

이번 주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자신이 실천한 관대함에 관해 생각해 보십시오. 재정적인 약속에 관한 결정은 어떻게 내립니까? 여러분은어떤 방식으로 회중들에게 신실한 청지기적 삶의 본을 보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회중이나 지역 사회에서 행해지는 “급진적인 관대함”의 예를 지적할수 있습니까?

교회의 예산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바라시는 영감을 일으키길만한 급진적인 관대함을 반영하고 있나요? 여러분이 속한 회중 자신들을 넘어서는 나눔도 있습니까?

예배로의 부르심

인도자: 하나님의 백성들이여, 가까이 오세요 함께 하십시오!

회중: 작금의 세상속에서 아낌없고 깊은 사랑을 하기위하여 주님의 길을 따라 가십시오.

인도자: 오세요. 우리 하나님께 경배하십시오.

회중: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리고 언제나 다른 이를 위해 기도하는 의로움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인도자: 우리 하나님이 이곳에 계십니다!

다함께: 감사를 드립니다

나눔으로의 초청

손가락과 국자는 관대함의 실천을 시각적으로 보여줍니다. 손가락을 집어 들면 한 사람을 위한 것이고, 적은 양을 위한 것이고, 개인에 관한 것입니다. 하지만 국자가 필요할 때는 섬길대상이 많을 때입니다. 우리가 손가락을 버리고 국자를 들 때, 타자를 우리 자신보다 앞세우게 됩니다.

이런 관대함은 어렵습니다, 그렇죠? 우리와 같지 않은 사람들을 위한 세상을 만든다는 것은 열심히 일해서 남들보다 더 앞서 나가려는 우리의 생각에 반직관적입니다. 국자를 손에 쥐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누라고 하시기 때문에 나누는 믿음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는 믿음이 요구하기 때문에 과부와 고아를 돌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물이 이기적인 욕망을 버리고 이 곳에서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겠다는 우리의 다짐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저희가 마음의 선물을 나누며, 당신의 뜻과 하나가 되고자 하는 저희의 의지의 표시로 드리는 이 제물을 받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저희가 서로를 환대하고 주님께 아낌없이 헌신하려고 노력하고, 주님의 자비에 감동되어 저희의 성소의 문을 열고 치유와 희망의 장소가 되게 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연령층과 능력들을 위하여

두 개의 큰 냄비 (하나는 비어 있고 다른 하나는 물이 채워져 있음) 와 국자와 손가락으로 기도처를 만드세요. 예배자들에게 손가락과 국자를 사용하여 한 냄비에서 다른 냄비로 물을 옮기도록 권유하십시오. 큰 국자를 사용하는 것이 얼마나 쉬운지 주목하고, 우리가 가진 것을 공유한다면 얼마나 더 많은 봉사를 할 수 있는지 사람들에게 상상해 보도록 권유하십시오.

우리가 선택한 금식

이사야 58:1-9a

설교 조언

이사야 58장의 이 말씀은 수세기에 걸쳐 우리에게 울려 퍼집니다. 우리 시대의 문화, 언어, 천년기는 굉장히 다르지만, 메시지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자선이란 무엇입니까? 정의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두 단어를 종종 같은 의미로 사용하지만 동의어는 아닙니다. 둘 사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돈, 물질, 시간을 나누는 것은 모두 매우 훌륭하고 중요한 일이지만, 그것은 자선입니다. 우리의 돈, 물질, 시간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도록 부당한 법을 바꾸고 공동 배려의 안전망을 만드는 것이 정의입니다. 자선은 억압받는 사람들의 필요를 충족시킵니다. 정의는 그런 필요 자체를 제거합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나 신앙 공동체로서 채워야 하는 바람직한 삶의 모습과 현실적인 삶의 모습 사이의 간격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지역 사회와 세계에 불의가 범람하도록 허용하는 제도로 인해 발생하는 침해에 어떻게 관여할 수 있습니까? 도저히 극복할 수 없을 것 같은 절망의 불모지에 삶의 길을 건설하기 위해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금식은 바로 이것입니다. 즉, 전체 피조물을 대신하여 평화, 정의, 화해를 위한 행동을 실천함으로써 세상 안에서 신실한 선지자의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정의의 행위는 억압받는 사람들의 삶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전체 인류 공동체를 더 건강하게 만듭니다.

불의를 제거하면 각자가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에 대한 두려움도 사라집니다. 권력과 부를 공유한다고 해서 이러한 자원이 고갈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방식으로 자원이 배가됩니다. 선지자가 우리에게 일깨워 주듯이, 우리가 이것들 중 가장 작은 것까지 돌보면 모든 사람에게 “빛이 새벽 같이 비칠 것이며” 공동체의 “치유가 빠르게 일어날 것입니다” (8절).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신앙 공동체가 정기적으로 행하는 종교 의식은 무엇입니까? 그런 의식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내는 방편으로 여겨집니까? 기도나 예배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배는 사람들로 하여금 무엇인가를 하도록 동기를 부여합니까? 그렇다면 그들은 무엇을 하도록 영감을 받습니까? 여러분의 교회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데 어떻게 참여합니까? 여러분의 회중은 삶의 격차로 벌어진 틈새에 어떻게 서서, 그 틈새를 메우고 있습니까? 당신은 어떻게 삶의 길을 건설하고 있습니까?

설교 조언

이러한 일들을 하는 한 가지 방법은 우리가 받은 모든 것들의 충실한 청지기가 되는 것입니다. 사회의 격차를 메우려면 관대함이 꼭 필요합니다. 틈새에 서는 한 가지 방법이기도 합니다. 시간, 재능, 돈을 공유하면 우리 모두가 삶의 길을 개척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거룩하신 분과 더불어 온 인류가 하느님의 환대에 참여하는 미래에 대해 상상해보는 것이 우리에게 내재한 하느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행동을 하도록 이끌어 줄 수 있습니다.

성찰을 위한 질문

이사야 58장 6-7절을 다시 읽고 선지자가 언급하는 봉사의 유형에 주목하십시오; 즉, 불의의 결박을 풀고, 압제받는 자를 자유롭게 하고, 굶주린 자와 집 없는 자와 가난한 자를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교회는 이들 중 어떤 활동에 정기적으로 참여합니까? 그렇게 하도록 영감을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회중은 "금식 선택"을 어떻게 결정합니까? 즉, 사역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정해지고, 여러분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관대함을 불러일으키나요?

예배로의 부르심

인도자: 오세요, 절하며 경배드립니다!

회중: 우리는 예배드리러 왔는데, 솔직하게 말하면 절하기가 어렵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교만으로 가득 차 있고 우리의 손은 죄로 얼룩져있습니다.

인도자: 오세요.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십시오.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운 소리를 지릅니다.

회중: 우리는 예배하러 옵니다. 그러나 우리의 도움을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외면했다는 마음이 들때면 기쁨으로 노래하기가 어렵습니다.

회중: 오 와서 예배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용서와 소망으로 우리를 환영해 주십니다.

인도자: 예, 그렇습니다.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다같이: 진실로 우리는 예배하러 오고, 겸손하게 엎드려 경배하고, 기쁨으로 노래하러 옵니다.

나눔으로의 초대

냉랭한 감시의 눈길아래서 행해지는 나눔엔 기쁨이 없습니다. 산더미 같은 의무감에 짓눌려서 행해지는 나눔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나눔은 어떤 것인지를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인식하고, 사랑하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나눔방식에 우리 자신을 맞추어, 비로소 기쁘고 자유롭게 나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물은, 우리가 사랑하고 나누는데 있어서 그리스도 예수를 따르는 초대장입니다.

기도

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예물을 바칩니다. 이 예물들은 우리의 일부입니다. 우리의 시간, 에너지, 활동 및 능력들을 보여줍니다.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바칩니다. 아멘.

모든 연령층과 능력들을 위하여

이사야 58장 6절과 7절에 언급된 봉사의 종류를 보여주는 사진을 인쇄하십시오. 각 예배자에게 이미지를 주고 여러분의 회중이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위한 봉사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묵상하고 기도하도록 권유하십시오.



고찰를 위한 추가 구절

다음의 구절들은 추가 연구, 소그룹 묵상 또는 예배때 간증을 나누도록 교인들을 초대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 아이디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Center for Faith and Giving가 제공하는 “Devoted to Generosity” 페이지 20의 지침을 참고하십시오).

요한복음 2:1-11

청지기 정신을 고려할때 중요한 점은 하나님께서 배풀어 주시는 풍부함과 질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의 회중 생활에서 교회에 가장 필요한것을 놀랍도록 풍부하게 받았음을 보여주는 이야기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차고 넘치는” 관대하심에 대해 간증할 수 있을 만큼 압도적인 축복의 순간을 경험한 교인이 있습니까?

예레미야 17:5-10

이 구절에서의 청지기직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신뢰할 만한 분이시고 찾아와 주시는 분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런 사실을 신자들은 알고있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것이라는 이런 믿음으로 살면서, 관대함을 실천하는 교인이 있습니까? 가진 것이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필요 사항이 충족되지 않을까봐 염려하지 않는 사람을 알고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그것이 사실임을 알 수 있는 방식으로 이 구절에 관해 이야기 할수 있습니다.

신명기 26:1-11

이 구절은 십일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미 행하신 일에 대한 응답이라는 분위기를 설정합니다. 우리는 구했지만 아직 받지 못한것들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것에서 베푸는 것입니다. 묘사된 행동은 예배의식입니다 - 즉 하나님의 구원 행위를 다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적인 돌보심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 어떻게 나누려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회중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과 그것이 그들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그리고 그들을 더욱 관대하게 만들었는지)에 대한 간증거리를 가진 사람이 있습니까?

요한복음 12:1-8

여기서 청지기직의 핵심은 여성이 보여주는 엄청난 관대함입니다. 그녀가 나누는 것은 1년 연봉에 해당하는 선물입니다. 무엇이 그러한 선물을 촉발할 수 있습니까? 그 여인은 그녀의 응답의 규모 외에는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예수님과의 만남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의 회중에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교회나 공동체는 여러분의 감사를 표현하는 유일한 최선의 선택은 되돌려주는것일뿐이게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에 압도 당한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나눌만한 간증거리입니다!

고찰를 위한 추가 구절

열왕기하 2:1-2; 6-14

이 구절에 접근하는 방법이 한 가지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오랫동안 몸 담았던 어떤 사람이 영광을 누리고 난 후에도 계속 유지되어온 사역이나 봉사의 유형을 조명해 보는 것입니다. 증언이 가능한 어떤 사람이 하던 역할을 이어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또 다른 하나의 접근 방법은 어떤 사명이나 프로젝트를 지속하면 그 노력의 수혜자들에게 다양한 축복들이 계속해서 임한다는 믿음을 간증할 수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11:1-13

이 구절을 위한 여러 접근 방안들이 있습니다. 일용할 충분한 양식이 있다는 것, 궁극적으로 그것이 필요의 전부라는 믿음이 핵심입니다.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회중의 한분입니까? 아니면, 당장 필요한 것만 가지고 계속 전진하는 선교 동역자 입니까? 또 다른 접근 방법으로는 기도 자체의 힘일 수 있는데, 기도는 이런식으로 행동하게 만드는 시발점이고 또 일상생활 가운데도 유지하게 하니까요.

I 이사야 1:1; 10-20

이 구절은 선지자가 품어내는 통렬한 정죄의 말씀입니다. 최종 결과가 각 개인과 그들이 살고 있는 사회의 변화에 기여하지 않는다면, 단순한 나눔의 행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거래 형태의 나눔이 개별적 행실이나 정의를 옹호해야 하는 필요성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관계하고 있는 사역 (또는 여러분이 후원하는 파트너십, 교단이나 기타 여러 단체)이 억압받고 소외된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됩니까?

바로 오늘이 그런 이야기를 전하는 날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도와줬다고 말할 수 있으려고 나누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나누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6:19-31

아주 선명한 접근 방식은 개인들이나 교회가 후원중인 음식 나누기 사역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더 미묘한 방식은 우리 가운데 존재하는 많은 필요사항들을 알아차리고 대응하려는 생각을 선택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부자는 매일 나사로를 보았지만 그의 가난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 다. 우리 회중의 누가 우리 지역 사회의 필요 사항을 인식하고 이에 대응하도록 우리를 재촉합니 까? 우리가 나누지 않을 때 가장 도움이 필요한 사람(영적 빈곤)이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사실을 깨 달도록 영감을 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사야 65:17-25

하나님은 온전함을 이루는 조건들이 충족되는 새로운 창조를 약속하십니다. 이것들이 물질적인 것들 이라는 점을 유의하십시오. 랍비들은 모든 사람이 먹을 수 있을 만큼의 빵을 충분히 가지게 될 때야 말 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는 징조라고 자주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회중이나 여러분의 파트너 중 누가 그 목적, 즉 이웃하는 모든 사람들의 가장 기본적인 필요 사항이 충족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 까? 이런 일들은 때로는 주말이나 학교 급식을 할 수 없는 여름 동안, 아이들을 위해 배낭에 음식을 채워주는 작은 행동이기도 합니다. 또 다른 경우에는 저렴한 주택을 제공하거나, 의료 서비스 사용 안내 또는 기초생활에 필수적인 비슷한 사항들을 위해 노력하는 대규모 조치일 수도 있습니다.

고찰를 위한 추가 구절

이사야 11:1-9

이 구절은 이사야서 65장 구절과 어조가 유사하지만 다른 옵션을 제공합니다.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는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라는 마지막 문구에 주목하십시오. 청지기 정신은 돈에 관한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구와 서로를 돌보는 것(상처 받거나 파괴가 없음)에 관한 것이며, 복음을 나누는 것(주님에 대한 지식이 충만한 것)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회중이나 선교 동역자 중 누가 지구를 돌본다거나, 청지기 정신을 실천하는 행동의 하나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수 있겠습니까?

관대하게 살아가기는 선포 사역과 **Center for Faith and Giving**의 협력으로 개발되었습니다. 선포 사역은 제자회 설교자들이 잘 준비되고 힘있게 복음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기위한 제자회 총회장 목사 사무실의 기획입니다. <https://disciples.org/preaching/>에서 더 자세히 알아보세요. **Center for Faith and Giving**은 크리스천교회(제자회)와 여러 기관단체들의 청지기 정신 교육을 지원합니다. <https://centerforfaithandgiving.org/>에서 더 자세히 알아보세요